하나님의 인간세상 진출 교두보

(신명기 20:1~20)

1.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5.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8.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9.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간 세상 진출 교두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세상 진출 교두보'

'교두보(橋頭堡)'라는 말은 군사용어로 상륙작전이나 공격작전을 펼 때에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적의 진지 안에 거점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다 잠들어있는 남한으로 이북 괴뢰군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파죽지세로 한반도 전체를 쓸고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부산 한 곳을 남기고 낙동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바로 UN군의 교두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색으로 표현하면 북

한 괴뢰군을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남한을 파란색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한반도 전체가 빨갛고 부산만 파란색이었는데, 이 부산이 바다 건너에서 오는 UN군들에게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교두보'라는 말이 군사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려고 할 때에 상해에 지점을 냈다고 한다면, 그 지점이 넓디넓은 중국 전체를 향하여 시장을 확장시켜 나갈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으로 진출하시기 위한 교두보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는 온통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의도가 내려오십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의도를 수용하는데, 이 지구 위에서 유독 인간 세상만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로 지워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삼라만상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데 인간 세상만 새카만 암흑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밝음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선악판단에 따른 의도나 계획이 들어오지 못하고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새까맣습니다. 언젠가 인공위성으로 한반도를 밤에 찍은 사진을 본적이 있습니다. 중국대륙에 한반도가 붙어있고 옆에는 일본열도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중국대륙과 남한과 일본열도는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38선으로부터 이북의 백두산의 압록강 두만강 사이는 새카맣습니다. 평양으로 짐작되는 부분에만 빛이 조금 있는데 전력이 제로 상태이고, 30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 삼라만상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와 있는데 인간 세상만 새카맣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간다고 하면 사장님부터 말단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새카맣습니다. 내가 선민이라면 새카만 직장에 가서 빛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지우고 살아가는 인간의 의도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의도가 내려올 수 있는, 6.25때 부산과 같은 지역과 인공위성 사진 상 이북이 새카만데 평양만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이북 같을 수 있고, 우리 직장이 이북 같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북 같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보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모세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임한 군인들에게 이토록 사사로운 개인사정을 들어서 귀가 조치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지금 막 벌어지려는 전쟁에서 지면, 낙성식이 어디 있고 포도원 소출을 먹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약혼녀와의 결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포도를 먹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고 집의 낙성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든지 전의를 불태워서 전쟁

에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낙성식을 못했다고 해서 빠지고, 농사지은 포도를 못 먹었다는 것이 뭐가 대수라고 민족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될 판에 귀가 조치를 한단 말입니까? 약혼녀와의 결혼이 능사입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이라는 것은 아직 정식 결혼이 아님에도 귀가조치 시키는데, 그렇게 치면 결혼해서 애 낳은 남편이 과부와 아기를 남기고 죽는 것보다는 약혼한 총각이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라고 하십니다. 병력이 열세면 정신력이라도 우월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뭔가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표면상 문자적으로 볼 때 신앙을 촉구하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눅14: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앞서서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벌이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핑계를 대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눅14:18~20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라고 하는데 눅9: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참 뜻은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나가되 그게 내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군이 강하다고 해서 두려워 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반드시 정신력으로 이기겠다고 강력한 투지를 불태울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전심을 다하는 총력전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예들에서 '낙성식을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고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성문화된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참 뜻은 '이 전쟁이 총력을 기울여서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절에서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 대한 오해가 교회사 쪽으로 엄청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적군의 병력이 우월하고 우리가 열세하더라도,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마음에 목적하는 바대로 승리를 쟁취하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좀 더 풀이해 보면 내 마음과 뜻은 굳건히 전쟁에서의 승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승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세상의

어떤 강력한 무기들보다도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는데 포인트는, 내 마음을 전쟁에서의 승리에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인데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말씀의 참 의도는 '전쟁터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마음은 전쟁에 두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면 당연히 적군들을 볼 것이지만 적군을 보고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반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라는 절체절명의 급박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보는 자가 선민이고, 그 적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이 현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한 것이지 '너희 힘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전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단지 네가 전쟁터에 보내진 이유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교두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군인들을 귀가조치 시키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으로 전쟁을 보고 너희들의 전쟁으로 치를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고 '전쟁터로 보내는데 적군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인데 '적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무리인 듯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치룬 전쟁의 전형적인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대하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은 숫자가 조그만 유다 땅에 쳐들어옵니다. 이 때에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 남녀노소와 더불어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합니다." '금식'은 오로지 '주만 바라본다.'는 표현인데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합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니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음으로 적군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적에게 칼에 맞고 창에 찔려 죽기 전에,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세상에 대한 마음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군에 대해 마음이 죽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에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므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드고아 전쟁터로 나갈 때에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적군을 보고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보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의 군대는 칼 한 번, 창 한번을 쓰지 않고 단지 그들은 적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드고아 전쟁터로 진출하실 수 있는 교두보 역할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멸하게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다윗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니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만군의 주이심을 마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시므로 놀듯이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의 교두보 역할만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치는 사람을 안 보고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민과 선민 아닌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민의 전쟁터에서의 과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얼마나 강력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이기느냐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절체절명의 다급한 관심거리 앞에서조차도 마음으로는 적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선민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우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본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체절명의 급박한 전쟁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선민의 과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로 선민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표현하시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두보가 필요한 것이지 선민더러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민들이 창과 칼을 들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되는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정 안에서 가정이 아닌 하나님을 보라고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직장에서 직장이 아닌 하나님을 보라고 하심인데,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교두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주신 이유는 마음으로 자녀 앞에서 자녀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을 안 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는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교두보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두보가 되는 길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을 안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볼 때에 하나님의 교두보가 됩니다. 애인과 만나는 것도 애인과 만나는 시간에 애인을 마음으로 안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럼으로써 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교두보로 삼아서 애인을 향해서 표현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안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교두보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오늘의 번제를 함께 하는데, 오늘의 번제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저런 것을 찾아보다가 34개국에서 오늘의 번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프랑스 파리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분이 한 분이 있다면 프랑스 전체를 염두에 두었을 때, 그 분이 프랑스를 위한 교두보인 것입니다. 파리에 있는 이유는 파리를 안 보고 파리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심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의 시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이동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1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해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도달한 증거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17: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주님의 동선을 쭉 따라 가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직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두보가 됩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혼자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다면 십자가 생활화만이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나 혼자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온 지구의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며 새카만 세계에서 살고 있을 때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두보가 되어서 전 세계에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세상의 대상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십자가를 알고 있는 내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정 안에서 가정을 안 보고 가정에서 전쟁터와 같은 급박한 관심거리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이고, 그 와중에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날 것인데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안 보고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을 봄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의 교두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북과 맞서 있는 이유는 이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의 교두보가 되라

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어디로 가든지 그곳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을 교두보 삼을 수 있도록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한편으로는 무진장 신나고 기대도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눈을 감아 등지고 그곳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 마음을 드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나타날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를 펼쳐내실지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다 잊고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마음을 몰두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잊지 않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